

호남재소자 포교에 역점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7-8일 장성 백양사에서 제6회 간부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200여 교정인불자들은 신행 사례 발표, 지회 소개 등을 통해 지역 또는 지회간 교류를 확대하고 호남지역 재소자포교를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굳은 신심을 바탕으로 재소자를 교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하는 지장보살이 되라"고 당부했다.



금강경 강독법회 봉행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9일 진관외동 삼천사에서 은평구사암연합회장 성운스님을 지도법사로 금강경 강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5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능엄장본을 공부했다. 성운스님은 "구인(區民)에 대한 공경심을 자신을 닮는 수행으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이날 봉사부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자 씨가 회원들에게 금강경 100권을 보시했다.



홍성 상하리 미륵불 친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8일 홍성 용봉산 상하리미륵불을 찾아 친견법회를 열었다. 이날 60여명의 참가자들은 수재인들이 아홉을 들고 빨리 극복하기를 발원하고, 현장에서 수재의연금 35만원을 모금해 수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신령리마애불과 용봉사를 참배했다.



“만생명은 나의몸” 자연살리기 서원

철불협 불자 등, 북한산 올라 환경수호법회

만생명은 나와 한마음 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 뜻과 자연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 보다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 정진에 힘쓰겠습니다. 나만의 편리함을 버리고 적고, 작고, 느리고 단순한 것을 진정한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며 절제의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와 편리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을 살리려는 '만생명을 위한 직장불자들의 서원'이 서울의 심장인 북한산에 울려 퍼졌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와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도시철도공사 법우회 등 직장직능 단체들은 8일 북한산 일대에서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도봉산 매표소에 집결, 등산객들에게 전단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으로 천축사까지 도보로 이동해 환

경수호법회를 봉행하는 순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150여 참가자들은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환경수호 108신장단'을 결성하는 한편 환경법회 개최, 걷기대회 정례화, 기존의 성지순례를 생태기행을 겸한 순례로 전환 등을

‘108신장단’ 구성·타단체 운동확산 추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수호 108신장단'은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일부터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수행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직장내에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원력보살의 역할을 담당한다.



철불협, 서울지하철공사법우회 등 직장직능단체들은 8일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를 열고 가정과 직장내에서 환경보존운동을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만생명을 위한 서원'을 낭독하는 모습.

장직능 단체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찬연 철불협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직장불자들의 환경보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보존 활동을 펼쳐가도록 철도불자와 직장불자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용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산행에 불교신행요소 접목 쉽없이 나 돌아보는 계기로”

부산청년불자산악회 이육태 신임회장

"산행에 불교 신행 요소를 잘 접목시켜 산행이 곧 쉬없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육태(41·사진) 회장은 산행을 통한 정진을 강조했다. 사찰 건축, 불화 등의 테마 산행을 통해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고 있는 기존 기획 산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족들이 다함께 동참하는 가족산행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명산에는 명찰이 있으니 산행은

자연스런 포교"라는 이 회장은 "산사에서 받아들이는 자연스런 불법의 향기가 생활속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가족산행의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하루차갑을 통한 수익금 등으로 소외된 이웃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거리 포교 프로그램인 연등 인연만들기, 군법당 후원, 수련회, 계간 회보 '청산에 드는 사람들' 발간 등은 계속 추진한다.

한편 98년 창립 이후 산행과 불교 문화를 접목시켜 젊은층 포교의 핵심



적 역할을 해온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박대관 사무국장, 김홍팔 등반대장 등 산행 참석율이 높고, 신심대륙 발탁했다. 이번 임원개편을 계기로 기획 산행과 사회봉사활동 강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 회장은 "청산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산악회 카페(www.freechal.com/bonsan)에 들러 청산의 품에 안긴 청년불자들의 싱그러운 마음을 만나 보라"고 적극 권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직장직능 전담포교사팀 구성

전남공무원·경찰 7명, 직장불자회 설립 지원

광주 전남 지역에 직장직능 포교를 전담할 직장직능 포교사팀이 새롭게 결성돼 29일 김정연(무안군청 사회복지과) 팀장을 비롯해 직장직능팀 포교사들의 임명식을 갖는다.

무안, 강진, 해남지역의 공무원과 농업 직원,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직장직능팀의 직장단위로 활동하면서 법회

운영과 직장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지원하며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은 직장부서로 우선적으로 결성을 추진한다. 또한 팀원간 상호 정보공유 및 법회 지원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김정연 팀장은 "직장포교를 발원한 협 직원,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직장직능팀이 힘을 합쳐 포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불교산악인련 27일 임시총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악)는 27일 오후 3시 서울 태워호텔 프린스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 총재를 선출한다. 이는 정인악 현 총재가 "10월중 열리는 창립기념법에 앞서 새 총재를 선출해 행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사임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전 유성구청불자회 성지순례

대전 유성구청불자회(회장 김종목)는 10월 5일 인제 백담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가족동반으로 이뤄지는 이번 순례에는 4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유성구청 불자회는 지난 5월 창립한 이후 매 분기마다 불교성지를 순례, 회원들의 결속과 신심을 다지고 있다.

우리은행 부산불자회 집전교육

우리은행부산불자회(회장 하명찬)는 14일 부산 영주암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의식집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법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돼 모든 회원이 목탁을 지참, 함께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명찬 회장은 "회원들이 아직 미숙하지만 직접 예불과 정근을 집전하면서 자신의 신행을 채찍질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소년·교사대상 적극 포교

경인교사불자회 창립5돌, 일반연수 상설화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28일 오후 3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청소년과 교사들에 대한 포교에 적극 나선다.

97년 9월 120명의 교사불자들로 창립한 이래 회원확대와 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주력해 온 경인교사불자회는

정기법회, 성지순례, 청소년수련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 회원이 450명으로 증가했다.

경인교사불자회는 이번 5주년을 계기로 더욱 내실있는 신행·포교단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고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해 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교사 일반연수를 상설화하고, 대구 경북 울산지역 교사불자회, 광주 전남 전북지역 교사불자회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또 청소년 불자양성을 위해 청소년 통신문과정을 개설, 수련회와 수계법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영 회장은 "교육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불자들은 청소년 포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불교관을 갖고 신행과 포교활동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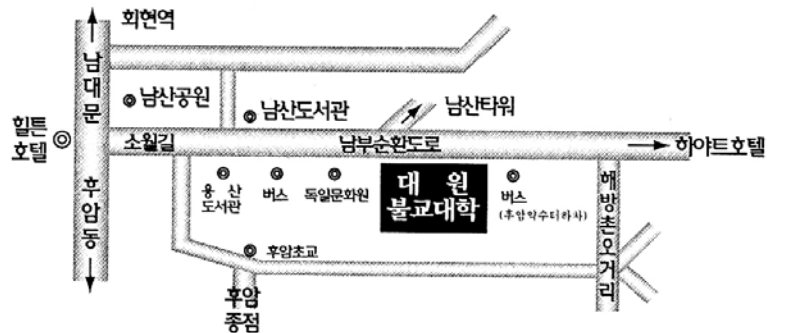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02) 596-7231
방문상담: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02) 722-4162

최봉수 교수의 범본 금강경 특강



한국불교의 소의 경전으로 불교 대중들이 널리 애독해 왔던 금강경! 지금 우리 불교는 그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구마라집과 현장 법사의 금강경 번역에 차이가 있고 산스크리트어 금강경과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제 최봉수 교수의 명쾌한 원전비평과 해석을 토대로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인 금강경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시도합니다. 불기 2546년 10월 7일 대원불교대학에서 펼쳐지는 사자의 외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개 강 : 불기 2546년 10월 7일 오후 2시 매주 월요일
- ◆ 장 소 : 대원불교대학
- ◆ 수강문의 : 02) 754-1613 (통신 수강도 가능함 : 직장인 및 출방이 불가피하신 분)
- ※ 본 특강은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중심으로 구마라집과 현장의 한역본, 현대의 영역본 등을 비교하며 진행됩니다.



• 지하철 - 서울역(1,4호선), 회현역 하차(4호선)
• 버 스 - 83, 83-1, 79-1(후암역 앞 하차), 32, 45(후암동 버스 종점 하차 도보 5분거리)

대원불교대학 홈페이지 www.idaewon.or.kr로 오세요

최고의 불교학자들의 명강의를 생생하게 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과 목	담당 교수	교수 약력
중국불교사	장 위 옥	부산대 화학과 겸, 중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사 졸업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 졸업, 현 금강대학 교수
원시불교	최 봉 수	중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 박사 졸업 현 중국대학교 사외교육원 교수
유마경 강독	여 경 구	서울대학교 불리학과 졸업중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인도 베나레스 힌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과 목	담당 교수	교수 약력
여래장 사상	김 사 업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중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 박사 졸업 일본 국립경도대학교에서 인도철학연구, 현 금강대학 교수
현대불교윤리	김 중 욱	중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박사 졸업 물교TV 불교와 철학의 만남에서 특강
전통불교의식	마 일 윤	스님, 불교 전통의식 법대 전수 교육자